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고, 순천만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이색 교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궤도열차 '스카이큐브'가 오는 20일 공식 운행된다. <순천시 제공>

순천만 비경 속으로 '무인궤도 열차' 출발합니다

순천만 정원~문학관까지 4.64km 20일 개통
대당 6~9명 총 40대...갯벌·갈대 군락 등 감상

순천만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지난해 8월 15일부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 무인 궤도열차(PRT)가 드디어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정원박람회에서 시범 운영됐던 무인 궤도열차가 '스카이큐브(SkyCube)'란 이름으로 정식 선보인다. 스카

이큐브는 아름다운 순천만정원을 관람할 수 있는 주요 관광 수단인 동시에 순천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와 순천시의 민간투자협약으로 설립된 ㈜순천에코트랜스(대표 남기형)는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을 잇는 국내 최초의 소형 무인 궤도열차인 스카이큐브를 오는 19일 정식 개통한다.

'스카이큐브'는 국내 최초 소형무인궤도 열차이며 길이 3.6m, 높이 2.5m, 폭 2.1m 크기로 대당 6~9명이 탈 수 있다. 총 40대의 차량으로 운영되며, 운행 구간은 순천만정원에서 순천문학관까지 총 4.64km에 이른다.
승객들은 26.5km의 갯벌과 5.6km의 갈대 군락지에 120종이 넘는 열생식물이 자생하고 해마다 235종의 철새들이 찾아오는 순천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오는 20일 정식 개장하는 순천만정원의 아름다움도 만끽하고, 순천만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미리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운행되는 기존의 대중교통 수단들과는 달리 스카이큐브는 승객의 필요에 의해 차량이 배치된다. 운행과

관련한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자율적인 배차 시스템과 무정차 운행'이다.
무엇보다 스카이큐브는 친환경 교통 시스템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100% 전기 에너지를 사용,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철제 차량이 아닌 폴리우레탄 박피 차량 구조여서 소음을 최대한 줄여 생태 환경과 공존이 가능하다.
순천시와 순천에코트랜스 측은 스카이큐브가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환경 친화적 교통 시스템으로서 5대 연인 습지이자 탐사르협약에 등록된 순천만 습지 특유의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조충훈 순천시장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관광상품화 순천 미래 100년 도약의 첫 걸음”

“순천만정원 개장은 '순천 천년의 공간'을 만드는 계기입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순천만정원은 순천이 생태 관광 도시로 거듭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바탕으로 순천 일대의 잘 보존된 자연과 정원이 어우러져 이색 관광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시장은 “순천만정원 개장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순천시 미래 100년을 만들어갈 새로운 도약의 첫 발걸음”이라면서 “21세기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힐링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정원문화를 전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경·화훼 등 정원산업 육성의 시작점”이라며 “시설물 설치나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관람객의 입장에서 시각적, 청각적, 감각적인 것까지 감안해 만들어야 감동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시장은 “순천만~순천만정원~동천~봉화산 둘레길로 이어져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으로 연결돼 체류형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순천만정원은 올해 전국 최초로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 순천만 정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해 순천만정원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정원박람회 그 감동 그대로...

1000여종 나무·꽃 '식물의 향연'

세계인의 가슴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던 순천만정원이 오는 20일 문을 연다. 지난해 정원 속 휴식을 선사했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폐막 후, 그 감동 그대로 관람객을 맞는다. 1급수인 동천을 따라 야생 사슴이 거니는 봉화산 둘레길까지 개통돼 순천만정원의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정원 개장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식은 오는 19일 오후 5시 잔디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스타트 치어리딩, 불복공연 등을 시작으로 공

식행사 이어 인기가수가 총출동하는 가요 축하 쇼가 펼쳐진다. 특히 대규모 꽃단지과 나무를 추가로 심어 지난해 정원박람회보다 풍성한 정원을 만들었다. 나뭇길 주변에 조성된 2만여㎡의 대규모 유채꽃단지와 코스모스 꽃길, 그리고 천여 종의 나무와 꽃 등 정원과 식물들의 향연을 지켜볼 수 있다.

계절별 맞춤형 테마를 개발하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140여회의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도 곁들여진다.



주차도 편해졌다. 동·서문 주차장을 비롯 저류지주차장 등 5개소 4381면의 상설 주차장과 오전택지 학교부지 등 임시주차장 4개소 등 총 9개소에 70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다.

순천만정원 내에 남도의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 3곳을 비롯해, 카페 2곳, 매점 4곳 등 18개의 편의시설도 운영한다.
/오광록기자 kroh@순천=김은종기자 ejkim@

창사 62주년
분양완료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무등산

이스토리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무등산의 품
그 수려한 산자락에 하늘이 내린 터 하나...

산이 삶이 되는 곳 - 무등산

223㎡/176㎡(전용면적) 12개동 총 96세대

대표전화 1566-7293